

2009년도 제3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개최

회원사 간 B2B거래 추진



본회는 지난 3월 19일 본회 회의실에서 2009년도 제3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업계 현황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지난 3월 12일~14일까지 경기도 양평 소재 한국방송광고공사 연수원에서 개최한 '25개 품목 생산·유통구조 개선대책 워크숍' 참석결과와 최근 가격 동향 및 전망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또 2009년도 육계생산위원회, 유통위원회, 삼계위원회의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현재 닭고기의 과부족 물량이 발생할 때 대부분 외부 유통시장을 통해 거래하고 있으나 향후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거래하도록 함으로써 수요공급의 불균형 발생시 가격의 과도한 급등락을 막는 한편, 유통비용의 절감차원에서 회원사간 B2B거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사업추진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VIV-ASIA 2009 방콕 축산전 참관

태국 계육산업 시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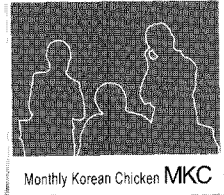
본회는 지난 3월 8일~13일까지 회원사 관계자들과 함께 'VIV-ASIA 2009' 방콕 축산전과 태국의 글로벌 육계 계열화 회사인 사하 팜 그룹 골든라인 비즈니스의 농장, 도계장, 가공장, 판매장 등을 방문해 태국의 계육산업 현황을 시찰했다.

VIV-ASIA 2009 방콕 축산전에서는 육계, 종계, 도계장비, 부화기, 급이·급수, 포장설비 등 계육산업 전반에 걸친 기자재 등을 볼 수 있었다.

또 원종계에서 도계가공까지 처리하는 육계계열화 전문회사로 수출용 닭고기를 주로 생산해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있는 골든라인 비즈니스를 방문해 계열화 운영 시스템을 견학했다.

그리고 덴마크 린코사가 방콕 몬테인리버사이드 호텔에서 개최한 농장관리 개선방안 워크숍에 참석해 어리장 시설과 도계시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본회는 이번 방문을 통해 세계적인 계육산업의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회원사들과 우리나라 계육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취재' 80P 참조).



### 철새 도래에 따른 예찰강화

#### 철새에 의한 AI전파 위험 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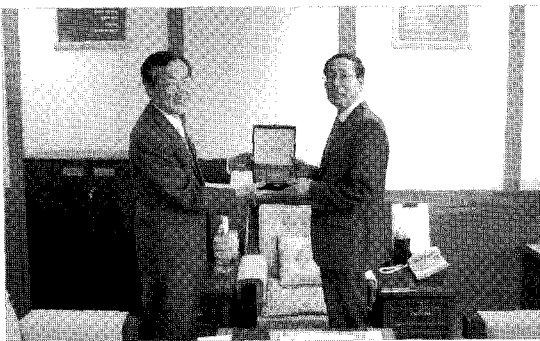
본회는 지난 3월 5일 최근 주변국에서 AI 발생과 철새의 우리나라 통과시기(3~4월)의 도래로 AI의 유입위험이 증가되고 있어 AI 상시방역에 따른 예찰과 차단방역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임상 예찰 강화, 철새도래지 및 소하천 인근 농가에 대한 주기적 예찰실시, 농장 방문자의 축사 출입의 통제 및 출입차량과 사람, 계사시설과 기구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차단방역 등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철새가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4월에 AI가 발생한 것과 관련한 것으로 철새가 통과하는 4월까지 철저한 소독과 차단방역으로 AI전파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 이상길 산림청 차장에게 감사패 전달

#### 계육산업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에 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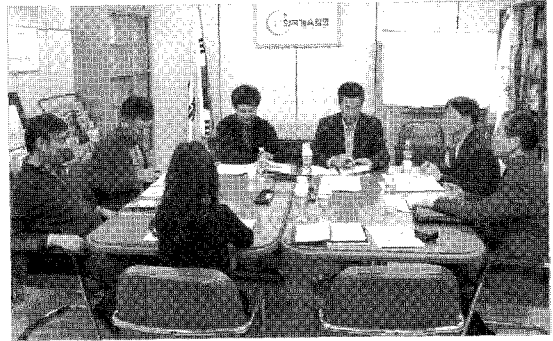
본회 서성배 회장은 지난 3월 24일 대전정부

청사에 위치한 산림청에서 차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상길 (전)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을 방문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상길 차장은 2006년 9월 28일~2009년 2월 19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으로 재직하면서 계육산업을 비롯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 제2차 편집위원회 개최

#### 편집위원 7명 위촉



본회는 지난 3월 5일 본회 회의실에서 2009년도 제2차 편집위원회를 개최했다.

편집회의에 앞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금과 최희철 연구관을 새로운 편집위원으로 위촉했으며 나머지 편집위원에 대해서도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날 편집회의에서는 '월간 닭고기' 전월호 평가와 아울러 4, 5월호 주요 편집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환율급등과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계육산업의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